

새로운 編輯體制로 轉換하면서

理事 曹 昌 鉉

바야흐로 現代는 장 자크 세르방 슈레베르의 말대로 "情報(information)의 時代"이다. 正確한 情報을 如何한 方法으로 迅速하게 蒐集하여 이를 消化시키고 適用하느냐에 따라서 企業의 成敗가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時事性을 가져야 價値를 갖게 되며 時代에 뒤떨어진 낡은 情報에만 戀戀할 경우 그 結果는 衰敗와 退墜 밖에 期待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基本原理에 바탕을 두고 우리 協會 技術職員들에게 防災에 關聯된 技術情報을 適時에 提供함으로써 業務能率向上에 寄與하며, 우리의 技術次元을 보다 高揚시킬 目的으로 "防火情報"을 創刊한 것은 지난해 3月이었다. 그러나 防火내지는 防災에 關連된 書籍·資料들을 우리 周邊에서 는 말할 것도 없고 先進諸國에서조차 求得하기가 容易하지 않은 實情에서 이를 編輯하는 實務者들은 적잖은 困難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多數의 技術職員들이 編輯 實務者들에게 口頭聲援을 보내어 激勵하여 왔으며 設問紙 配布를 통한 公式的인 輿論 調査 結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를 더욱 發展시키야 한다는 命題를 浮刻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

특히 自體 프린트에 의한 製作方式으로는 印刷 미디어의 效果를 充分히 살리기는 姑捨하고 오히려 半減시키는 逆效果만을 얻을 뿐이라는 소리가 드는었으므로, 1981年 새해를 맞이하여 急速부더는 編輯體制를 一新, 全技術職員들에게 보다 더 有益한 資料를 效果의으로 傳達하고자 企圖하여 온 것이다. 하지만 豫算上의 어려움과 그 밖의 여러 가지 制約을 받다 보니 當分間 編輯 實務者들이 滿足할 만한 理想的인 誌面을 꾸미기는 힘들 것이라고 判斷된다. 그러나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고, 처음부터 完全할 수는 없으므로 좀더 年輪과 經驗을 쌓음으로써 漸次的인 改善도 이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添言할 事實은, 이 "防火情報"의 發展을 위해서 編輯實務者 外의 全技術職員이 지금보다도 더 積極的인 關心과 參與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바람직한 編輯方向에 대한 助言, 製作方法에 대한 意見提示 등을 함으로써 "우리 것"이라는 觀念을 굳혀야겠다.

여하간, 自體의 複雜한 프린트 方式에서 進一步한 外部 發注에 의한 鮮明한 印刷方式으로 轉換함을 契機로 더욱 본 "防火情報"을 全體 技術職員의 有用한 伴侶로 育成시키도록 相互 協調하고 努力에 주실 것을 懇曲히 당부 드린다.